

2026년 10월 넷째 주, 구역 공과

39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가라.

-예레미야 6장 16~17절(구약 1060)-

예배순서

• 찬송: 452/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453/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계획적인 편인가? 즉흥적인 편인가? (예: 알람 맞추기, 스케줄 쓰기 등)

말씀 속으로

인생과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에도 멈추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다. 사탄은 신앙을 단번에 뒤집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단 2도, 복음의 은혜에서 단 2도씩 인간의 욕망 쪽으로 살짝 비틀어 놓는다. 종교 개혁은 복음에서 벗어나 파멸의 절벽으로 질주하던 중세 교회를 향해 브레이크를 건 사건이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역시 유다 백성을 향해 관성대로 달리지 말고 길에 멈추어 서서 영혼의 좌표를 점검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한다.

1. _____: 길에 서서 처음 자리를 물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렘 6:16) 하나님은 짧은 구절 속에서 세 가지 긴박한 명령을 던지신다. “서라”, 산책하듯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밟듯 의도적으로 똑 멈추어 세우는 단호한 결단을 의미한다. “보라” 멍하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는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명령이다. “알아보라”, 길 잃은 나그네가 길을 아는 자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묻고 조사하듯 올바른 생명의 길을 찾는 태도다. 당시 남유다는 요시야 왕의 개혁 직후로, 아라비아 시바에서 값비싼 유향을 사 오고 성전에 제물을 쏟아부으며 종교적 열심을 과시했다(렘 6:20). 그러나 실상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취했고 지도자들은 거짓을 행했다(렘 6:13). 500여 년 전 중세 교회 또한 웅장한 대성당을 짓고 1만 9천여 점의 성유물을 수집하며 연옥 감면을 위해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종교적 가속 페달을 밟았으나, 그 이면은 면죄부 판매와 영적 착취로 썩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분주한 사역, 새벽기

도, 주일 성수, 십일조 등 종교적 분주함에 취해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영적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열심과 말씀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 빠진 분주함은 영적 타성으로 변질된다.

2. _____: 옛적 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세련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하지 않으시고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라고 명하신다. 이는 낡은 전통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타협이 덧칠해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원형, 즉 십자가 은혜와 말씀에만 순종하던 ‘신앙의 본질’을 뜻한다. 이스라엘은 옛적 길이 고리타분해 보여 바알과 아세라 등 편리하고 화려한 유행을 섞어버림으로써 파멸을 자초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본질로 돌아갈 때만 하늘이 주는 참된 안식과 샬롬(평강)이 임한다. 종교 개혁의 깃발인 ‘아드 폰테스’(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라) 역시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천 년 동안 덧칠해진 인간의 공로와 미신을 걷어내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본래의 복음으로 복원한 작업이었다. 명화 복원가가 묵은 때를 특수 용액으로 조심스럽게 벗겨내 원작을 드러내듯,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인간의 공로와 종교적 위선을 닦아내는 데 있다.

3. _____: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렘 6:17) 하나님은 재앙을 막기 위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에서 ‘듣다’는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삶으로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며 고집스럽게 귀를 틀어막았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당했다. 연주자들은 공연 직전 조율했어도 무대의 열기와 환경 변화로 늘어질 수 있는 악기 줄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맞춘다. 우리 신앙도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영적 타성 속에서 날마다 미세하게 2도씩 틀어진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음(A음) 앞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삶을 조율(튜닝)해야 한다.

나눔과 기도

- 최근 기도나 성경 묵상 중 내 고집과 부딪혔던 하나님의 말씀(나팔 소리)은 무엇이었는가? 내 생각을 꺾고 구체적 순종으로 삶을 조율할 한 가지 결단을 나눠보자.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자.